



여름의 정취 장춘시모란원에서 느껴본다

장춘시모란원이 여름을 맞아 모란꽃바다를 이루며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사람들은 화사한 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은 일상에 활기를 더하고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여가시간을 선사한다. 이번 여름, 기자의 렌즈를 따라 장춘시모란원의 매력을 느껴보자!

/ 글 손맹번기자 / 사진 오건 김명준 주동 기자

